

곽영은의 작품을 평론한다

Review of the work of Young eun-Kwak

곽영은*, 최성옥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Young eun-Kwak*, Sung ok-Choi
Chungnam National Univ.*,
Chungnam National Univ.

1. 작품 이미지



2. 작품 설명

1) 안무의도

‘우아한 시체’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하던 자동 기술방법 중 하나로, 있어야 하지 않은 곳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출연함으로써 일어나는 충격을 의미한다. ‘우아함’, ‘시체’라는 서로 동떨어진 두 개의 사실체의 이질적인 우연한 만남처럼, 의도적으로 음악과 영상을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동떨어진 장면 장면을 연결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장면들이 변주를 거듭하며 작품 〈우아한 시체놀이〉는 도덕적인 체면을 중요시하지만 윤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훑쳐보는 인간의 이질적인 이중성과 사회의 무관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당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하던 방법론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당연히 펼쳐져 있다.

2) 작품내용

19세기말, 군중들은 볼 수 있는 무엇을 갈망했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체안치소 ‘모르그’에 수만명의 구경꾼들이 몰릴듯 몰려든다. 시체의 신원확인이라는 인간적 의무는 우아한 품위를 중요시하는 인간들에게 그저 자극적인 구경거리로 변형된 채 추한 본성을 드러나게 한다.

세기말 모르그에 몰린 시체구경꾼들처럼 현대에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자비한 이야기들이 왕성하게 우리 문화를 포식하고 있다. 우리는 구경하고 그것을 찍어 미디어에 올려놓고 전시하며 구경에 따른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아무도 자진해서 열어보지 않을 것 같은 잔인한 영상물은 의외로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한다. 은밀한 클릭으로 내면에 잠재해있는 본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함이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잔혹한 유희를 묘하게 즐기는 인간의 광기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전시와 구경의 대상은 다양하다. 매일같이

뉴스 사회면에 도배하듯 실리는 비상식적인 기사들처럼 그저 자극적이거나 잔혹하거나 공포스러우면 구경꾼들은 구경거리를 사냥할 뿐이다. 그 희생양인 우아한 시체들이 곧 추한 시체구경꾼들을 향해 다가올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3. 작품 평론

제목이 어떻게든 곱영은의 시도는 가히 실험적이었다. 우리가 '시체놀이'라고 하면 연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가 배제된 요소들만 무대에 가득 차기 때문이다. 곱영은은 무대를 2~3개 장면으로 나누어 한쪽 구석에서 신문을 정독하는 사람, 신문을 읽고 반응하는 사람, 신문속의 인물 등 각양각색의 장면을 동시에 올린다. 지면의 활자는 관객이 볼 수는 없지만 대신 청각적인 효과로 대충 어떤 기사를 읽는지 짐작이 간다. 우리가 신문을 읽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춤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무대의 전반적 분위기는 경쾌함을 잃지 않는다.

곡예를 연상시키는 남녀의 군무도 제목과 시뮬 동떨어져있다. 여러 가지 귀에 익은 다양한 음악과 이에 맞춘 군무는 애드벌룬마냥 떠있는 몽계구름에 걸맞게 애니메이션적이며 이국적이다. 마치 다혈질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기질과 비슷한 이탈리아인들을 보는 것 같다.

아마 다른 관객들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대체 시체놀이 언제 나오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공연을 관람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 고도가 언제 나올지 기대하듯 말이다. 엉뚱한 제목으로 관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만큼 무대에서도 랜덤으로 음악이 수시로 바뀌며 거기에 따라 장면과 상황도 정신없이 바뀐다. 이 혼란스러운 무대를 통해 멀티태스킹을 요구받는 현대인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면 억지일까. 한 가지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TV 리모컨을 돌려대는 나 자신, 그리고 참을성 없는 어린 세대들을 돌아보게 된다. 공연이 끝난 후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는 행위마저도 불확실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혼란의 태풍 한가운데서 잠시 주검과 같은 고요를 느끼게 한다.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출신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통해 지방의 무용수들의 높은 역량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동우, 춤, August 2014.

마지막 날 공연에서는 곱영은의 〈우아한 시체놀이〉가 돋보였다. '우아한 시체'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작업했던 방식 중 하나인데, 서로 앞서 그리거나 쓴 것을 보지 않은 채 종이를 접어 이어 그린 다음 펼치면 전혀 다른 생경한 것들이 바로 만나는 데서 오는 충격과 거기서 나오는 영감을 의도한 것이다. 안무가는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걸으려는 우아한 척 하지만 잔혹한 소재

들에 몰려다니고 즐기면서도 무감각한 현대인의 이중성을 그려내고자 했다.

작품은 굵직한 몇 개의 시퀀스로 나뉘고 다시 그 안에서 분화된 장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에 놓인 테이블을 기준으로 대강 세 그룹으로 나뉘어 움직인다. 어느 하나도 유사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인 춤으로 변주를 거듭하기 때문에 두 눈과 뇌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이 그 양상을 관찰해야 하는데 후반부가 가면 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신을 거듭하는 그림들까지 배경으로 보태져 습관적으로 합리에 기대려는 의식 작용을 방해한다.

방희망, 춤웹진, August 2014.

곱영은의 「우아한 시체놀이」는 단속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현대를 고발한 의도가 돋보인 작품이다. 음악이 단편 단편 연결되고 영상,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기량 있는 움직임이고 일정수준 이상이다.

김경애, 댄스포럼, August 2014.

곱영은 안무의 〈우아한 시체놀이〉는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가변력을 갖춘 춤 연기, 꿈과 현실의 구분하며 판타지를 창조하는 조명, 반전과 역발상을 창출하는 사운드와 영상, 이 모든 것을 이미지화 시키는데 성공하며, 군더더기 없는 연출로 주제에 밀착되는 안무의 이 작품은 음미할수록 감칠맛이 돈다.

장석용, 그린경제, August 2014.

첫 번째 작품 곱영은의 〈우아한 시체놀이〉는 많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일 신문에서 등장하는 자극적인 현실, 무심하게 설정된 관계들을 콜라주 형식으로 무대에서 치밀하게 나열했다.

각 춤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군상들을 대표하는 상징체로 등장했다. 각 에피소드들이 안무가의 의도에 따라 연결성을 지양하였기에 일반 관객들은 초반에는 다소 이질적인 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환상적인 뮤지컬을 보는 듯 시각적인 만족감과 무엇보다 춤꾼들의 연기와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 표현력 돋보였고, 이로 인해 스토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춤꾼들의 기량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다양한 음악을 사용해 관객들을 흥미롭게 집중하게 하였다. 특히 투명한 테이블에서 세 명이 춤추는 장면은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은밀한 관음증의 한 모습을 은유하는 듯 하여 현대인들의 변질된 도덕심과 추한 본성을 읽고자한 안무가의 의도가 엿보였다.

김혜라, 춤웹진, October 2014.